



전통춤과 현대춤 오묘한 어울림

미술관서 하룻밤 보내게 된 비보이
그림속 무녀와 환타지 속으로...
관음보살춤 무당춤 등 12 각국 춤 선봬

'우주' '인간' 그리고 '일상'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展

서울 경운동 '미술관 가는 길'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해온 4인의 작가를 소개하는 전시회를 마련했다. 9월 12일~10월 3일 열리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4인의 작가 오경환, 오원배, 황주리, 최석운 화백을 초대해 그들의 작품세계를 선보인다.

삼라만상 우주를 독창적인 시각언어로 재해석하는 오경환 화백, 현대인의 고독한 실존과 소외를 힘찬 필치로 표현한 오원배 화백, 독특한 도시적 상상력으로 현대인의 내면세계를 형상화하는 황주리 화백, 우리의 일상을 웃음을 자아내는 우회적 세계로 재창조하는 최석운 화백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번 전시는 이들의 70~80년대 대표작과 그들이 걸어온 발자국을 따라



오원배 화백의 '무제'.
가보는 소중한 자리이다. 작가들마다 테마도 다르다. 오경환 화백은 '우주'를, 오원배 화백은 '인간'을, 황주리 화백은 '자화상'을, 최석운 화백은 '일상'을 담아낸다. (02)738-9199
김지연 기자

'보살무' 백향주, 비보이와 한무대에

댄스퍼포먼스 '더 코드'...백암아트홀 9월 14~30일



음악 춤 퍼포먼스의 만남. 아시아춤 민족춤 보급을 위해 노력해온 무용가 백향주씨가 비보이와 함께 이색적인 춤판을 벌인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원력이 담긴 보살춤은 현대 춤판의 최고 춤꾼 비보이(B-boy,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사람)란 뜻으로 남자댄서를 지칭)들과 만나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일구어낸다. 서울 삼성동 백암아트홀에서 9월 14~30일 만나는 댄스퍼포먼스 '더 코드(the CODE)'. '최승희의 재래'로 주목받아 온 무용가 백향주와 영국 UK챔피언십·프랑스 베를 디 때시 우승에 빛나는 비보이 그룹 T.I.P.(Teamwork Is Perfect)의 춤꾼 12명이 꾸미는 무대다. '잡꼬대 춤'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제목의 춤으로 시작되는 무대는 관음보살무, 천수보살무로 제1장을 장식한다. 2장부터는 비보이들의 춤과 무녀의 춤이 한바탕 화합의 몸짓을 보여준다. 비보이의 팝핀춤

과 무녀의 단단단춤·몽골족춤, 격투신춤과 고무러·티베트가 만난 장삼춤이 어우러진다. 4장에서 경찰춤 새춤 등을 선사한 후 비보이 솔로 무대로 '더 코드'는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라이벌적인 두 무리의 비보이가 만나 싸움판이 벌어진다. 경찰을 피해 미술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비보이들은 전시된 그림속 무녀와 만나 환타지 속으로 빠져든다. 이색적인 손가락 동작이 눈에 띄는 관음보살춤, 빠른 발동작이 매력적인 몽골춤, 신을 부르는 무당춤을 추는 화보집 속 무녀에게 매료되는 춤꾼들. 비보이들의 열광은 벽화 속 무녀를 현실로 끌어내 같이 춤을 추게 만든다. 최승희를 계승한 보살춤을 비롯해 고무러춤에 영향을 준 티베트춤, 몽골춤, 태극춤 등이, 비보이들과 만나 어떤 환상의 무대를 맞보여줄지 백암아트홀에서 만나 보자. (02)459-6937 김지연 기자

"동아시아춤 현대적 변용 보여줄 것"



interview 무용가 백향주

전통춤과 현대춤의 만남을 시도한 무용가 백향주씨의 이력은 독특하다. 일본 고베에서 태어나 도쿄에서 성장한 그녀는 러시아국립불소이발레학교, 국립평양음악무용학부, 중국 국립중앙민족대학무용대학을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세에 도쿄 메르파크홀에서 첫 솔로 리사이틀 이후 북극공연만 300여회에 이른다. "처음 춤을 추기 시작한 것이 두 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발레 무용수여서 저도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죠. 8살 때부터 22살이 될 때까지 평양을 드나들며 최승희 춤을 배웠습니다."

군무 중심인 북한 무용계에서 독무를 배우기란 쉽지 않았다. 일본과 북한을 오고가며 필사적으로 배웠다. 그후 5년 동안 중국에서 실크로드 인권의 동아시아 소수민족들의 춤을 파고 들었다. 그녀가 주장한 동아시아춤은 여기에 한국전통무용을 더해 완성했다. "이번 무대에서 선보일 춤은 최승희춤의 계승자라고만 알려졌던 일부였던 제가 아닌 동아시아춤인 제 춤을 알릴 예정입니다. 최승희춤은 제 안에서 일부분이기엔 최승희춤 외에도 제가 개척해나가는 동아시아춤의 현대적 변용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무대에 오르는 고무러춤은 최승희의 마지막 작품을 개작해 고무러춤의 원류인 티베트춤과 접목시킨 춤이다. 비보이와 함께 천수보살춤도 춘다. 세계 초연이다. 백향주씨는 "현대춤을 추는 비보이들이 천수보살춤을 추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시도"라고 말한다. 몽고춤을 기반으로한 비보이들의 격렬한 댄스배틀도 벌어진다. 베트남 국경지역에 사는 소수민족 타이족이 전승해온 공작새춤을 새로 개발한 '새춤'은 북극에서 시작해 20여년간 비보이들과 함께 군무로 선보인다. "구속에서 탈피해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심정을 새춤에 담았어요. 재일교포 2~3세로 경계인으로 살아온 제 환경에서 나오는 절실한 저의 욕망이자 자유에 대한 갈망이 들어있죠." 마지막은 무당춤 후에 비보이와 백향주씨의 부채춤이 현란하게 무대를 장식하며 하나로 화합하는 감동을 선사한다. "나와 비보이의 춤을 서로 녹여내 새로운 춤의 세계를 보여드리겠다"며 자신의 춤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백향주씨는 관세음보살 앞에만 서면 눈물이 난다고 한다. 공연을 위해 다닌 아시아지역에서는 소송 대응 거리지 않고 사찰을 찾아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부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정화하는 작업을 한 것이다. 그녀에게 춤은 곧 무아의 경지요, 한순간이라도 무심이 되서 부처님 세계에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이다. "춤은 육체만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합쳐졌을 때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백향주씨. 31살, 젊지만 젊은 나이이지만 자신만의 춤세계에 완전히 빠져 '백향주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녀는 진정한 일인자였다. 글=김지연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다시 태어나 러-北-中서 춤 배워
19세이후 북극공연만 300여회
'최승희춤 계승자'란 명성 나의 일부
관세음보살 앞에 서면 늘 눈물이...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치로, 불자님의 가정에서 더 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백년가약
사랑스런 자녀의 혼인을 현대에서...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 대우,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사무실: 02)2677-5442
소연구원: 032)345-5411
휴대폰: 011)288-2944

현대결혼연구원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쟁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다
◆ 전통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서울시 중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ukak.com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고
전기온풍난방을 생각하고
기름보일러를 생각하고계셨다면

(난방비 50% 절감)
(난방비 70% 절감)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구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등유
소비자 가격	66.8원/kw	36.8원/kw	640원/㎡	1250원/㎡	1000원/ℓ
열효율(%)	100	95	90	100	90
연료소비량(ℓ)	588kw	1650kw	124㎡	1569kw	124㎡
월간난방비	39,200원	60,700원	79,360원	104,800원	155,000원
단가저수	100	155	202	267	3950
					464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없었으나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령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200여곳 시공한 전문 시공 업체입니다

전기보일러사용비교표
28평 난방에 (1월10일 기준) 시공합니다
(연료비 50~75% 절감)

유시점에 주의하십시오
* 제품: 정품이국칼로리쿠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설치하면 좋은 곳
법당, 오사채, 선방, 어린이집, 식당 등

대체에너지(주)
천안·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바로보인의 책들
대원 문제원 선사사찰역사 / 37가지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출간>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천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권강대선사의 인가계사인
대원 문제원 선사사찰에서 일체종지를 봉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출간>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원 문제원
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절경과, 오우보탑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날날이 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